

창4:20-21, AC.412-420
“아케이나”(arcana, 秘義)

‘아케이나’(arcana, 秘義)

²⁰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²¹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창4:20-21)

우리는 지난 두 주간 ‘아다와 썰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잠깐 배운 것들을 상기해 보면, 라멕은 태고교회가 아주 황폐해진 상태, 곧 그 시절 교회의 종말의 상태라는 것, 그런데 이 종말, 라멕의 때에 주님이 일으키신 새 교회가 바로 ‘아다와 썰라’라는 것, 여기서 ‘아다’는 새 교회의 천적,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 ‘썰라’는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라는 것, 또한 이들의 자녀로 묘사된 ‘야발과 유발’ 및 ‘두발가인과 나아마’를 통해서는 이들은 그 새 교회의 천적, 영적 및 교회 안팎의 자연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의미로 읽는 것, 이것을 ‘아케이나’로 읽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창세기 아케이나 설교를 쉬지 않고 해오던 걸 잠시 멈추고 대신 오히려 이 ‘아케이나’(arcana, 秘義)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한 주 쉬어가는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아케이나로 읽기 시작한 지가 벌써 제법 좀 되었습니다. 올해로 삼 년 차인가요? 그동안 터를 깊이 파느라, 기초를 튼튼히, 단단히 놓느라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창세기 처음 몇 장을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참 지루하실 법도 한데... 개의치 않으시고 묵묵히 따라오시는 여러분도 참 대단들 하십니다. 반드시 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⁵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⁶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126:5-6)

이렇게 이 아케이나라는 것과 친해 지는 시간이 걸렸던 것은, 그동안 곁과 육(肉), 외적(外的) 시야에 익숙했던 우리라 속과 영(靈), 내적(內的) 시야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나 낯설고 이상하고 어려웠기 때문이

창4:20-21, AC.412-420
“아케이나”(arcana, 秘義)

며, 어느 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배우기를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배우면서도 정작 영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최종 종착지인 천국 역시 그저 이 세상 삶을 조금 순수하게 개념 확장하여 짐작할 뿐, 천국이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 이 세상은 물질이지만 그곳은 영이며, 이 세상은 시공간이지만 그곳은 상태라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 알기를 원하면서 정작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 나라는 이럴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며, ‘그래 맞아. 그럴 꺼야. 저 말이 맞을 꺼야...’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말고는 갈 수 없는 천국을 갔다 와보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 세상 다른 곳이야 어찌어찌 간다 하더라도 영계만큼은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특별히 한 사람을 불러 천국을 비롯, 영계의 정말 많은 부분을 오픈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년 전 사람인 임마뉴엘 스베덴보리(1688-1772), 그는 스웨덴 태생 과학자인데요, 다음은 제 블로그에 짧게 소개한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마뉴엘 스베덴보리는 1688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출생, 웁살라대학에서 언어학, 수학, 광물학, 천문학, 생리학, 신학을 수학했습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여 광산학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아이작 뉴턴과 같은 최고 과학자 반열에 올랐으나 57세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영계 체험을 시작, 이후 27년 간 영계를 자유롭게 오고 가며,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그 라틴어 원고만 수만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의 과학적 재능을 아낀 동료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와 같은 과학자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곧 영계에 관한 진리를 남기는 일은 인류 전체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특별한 소명은 제가 과학자로 공헌하는 것보다 수천수만 배 더 중요합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저서, ‘*True Christian Religion*’(1771)을 끝으로 이

듬해인 1772년 주님이 부르시는 영
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그가 남긴, 위에서 말한 라
틴어 원고로 저술한 기록들입니다.

영계 일기(*Spiritual Diary*), 전 5권
1747-1765 作

천계비의(天界秘義, *Arcana Coelestia*), 전 8권 1749-1756 런던 출판

천국과 지옥(*Heaven and Hell*), 17
58 런던 출판

우주 안의 지구들(*Earths in the Un
iverse*), 1758 런던 출판

최후 심판(*Last Judgment*), 1758
런던 출판

새 예루살렘과 그 천적 교리(*New
Jerusalem and its Heavenly Doctr
ine*), 1758 런던 출판

백마(白馬, *White Horse*), 1758 런
던 출판

계시록 해설(*Apocalypse Explaine
d*), 전 6권 1759 作

주의 교리(*Doctrine of the Lord*), 1

763 암스테르담 출판

성경의 교리(*Doctrine of the Sacre
d Scripture*), 1763 암스테르담 출판

생활의 교리(*Doctrine of Life*), 1763
암스테르담 출판

신앙의 교리(*Doctrine of Faith*), 17
63 암스테르담 출판

속 최후 심판(*Continuation Concern
ing the Last Judgment*), 1763 암스
테르담 출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Divine Love
and Wisdom*), 1763 암스테르담 출
판

하나님의 섭리(*Divine Providence*),
1764 암스테르담 출판

계시록 풀이(*Apocalypse Revealed*),
전 2권 1766 암스테르담 출판

결혼애(結婚愛, *Conjugal Love*), 17
68 암스테르담 출판

간략한 해설(*Brief Exposition*), 176
9 암스테르담 출판

영혼과 몸의 소통(*Communication o*

창4:20-21, AC.412-420
“아케이나”(arcana, 秘義)

f the Soul and the Body), 1769 런던 출판

참된 기독교(*True Christian Religion*), 전 2권 1771 암스테르담 출판

네, 주께서 특별하게 쓰신 이분을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 어느 나라에 대한 소개는 그 나라를 갔다 와본 사람이 하면 한결 생생하고 신뢰가 가는 것처럼 이분 스베덴보리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가까이하시고, 천국을 비롯한 영계 전체를 27년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사 이래 많은 사람이 영계를 다녀왔다, 체험했다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 바울조차 삼층천 다녀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스베덴보리 역시 그들 중 하나일 뿐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저 저서들을 직접 읽어보시면 일반적인 간증이나 경험담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극도로 경계하며, 많은 의심을 품었지만, 주님의 격려와 꾸준하신 권면에 힘입어 몇 권의 책을 읽고는 마음을 열게 되었으며,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은 주님 말씀이 생각났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14:11)

스베덴보리는 우리가 아는 다른 이단들과는 달리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순도 백 프로의 깨끗함으로 천국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신 분이려면 위 목록 중 아무거나 읽어보시면 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허락으로 삼층천을 한 번만 다녀온 이야기도 성경이 되었거든 하물며 27년간 왕래하며 수 만장을 기록으로 남긴 이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스베덴보리는 말하기를 비록 지상의 언어로는 저렇게 수 만장 기록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옮길 수 있었던 저 지난 27년간의 기록조차 사실은 주님의 정월 정월수 어느 가지 하나에 붙은 잎사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지혜, 천계, 영계의 어떠한 은 육과 물질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음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신앙적,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이단 판정을 내리거나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고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피조물의 특성상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들을 보면 말이지요. 주님에 대해서도 그랬거든 하물며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떤 주장이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교리와 사뭇 다를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 태도는, 혹시 모르니 조심하고 예를 갖추자,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을지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곧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인해 소란이 벌어졌을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이 말로 제자들을 구했습니다.

³⁸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³⁹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

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행5:38-39)

물론 그렇다고 그 이단성과 거짓이 너무나도 명백한,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나 JMS 등과 같은 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증거들조차 네, 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저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보셨으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들이 성경을 엉뚱하게 풀어 교묘히 주님의 신성을 가린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신성을 그저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기 위해 사용, 폄훼, 훼손, 모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들의 모든 주장에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대신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얼마나 주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반하며, 거꾸로 뒤집은 것인지 금방, 그리고 본질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단을 대할 때 우리는 일단 저들의 죄에 간섭하여 우리 자신을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한다

창4:20-21, AC.412-420

“아케이나”(arcana, 秘義)

는 것은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며, 저들이 비록 이단이지만 이단인 저들조차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르지만 저들을 포함, 우리 모두 이렇게 숨을 쉬고 무슨 힘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은 모두 주님의 신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스베덴보리를 통해 알리신이 모든 메시지를 저는 통칭하여 ‘아케이나’(arcana)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케이나는 라틴어로 ‘비의(秘義)’, 곧 숨은 뜻, 속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시크릿(secret)이 가깝겠습니다.

스베덴보리의 저작들, 곧 천국 아케이나에 관한 내용들은 바울의 십자가 복음 교리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처음엔 귀에 잘 안 들어오며, 어떤 내용들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가령, 창세기 처음 장들에 나오는 인물명들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닌 교회명, 교리명, 신앙명이라는 것, 예를 들면, ‘아담’은 아담이라는 한 개인이 아닌, 태초에 존재했던 태고교회, 인류 첫 교회를, 신앙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가인’, ‘아벨’은 그 교회에서 일어난 새로운 신앙들을 말하는 것이라라는 식의 설명이지

요. 저는 이런 식의 풀이를 생전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말씀의 아케이나, 곧 겉뜻에 들어있는 속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교리에 익숙한 우리와 달리 아케이나가 알려주고 있는 구원은 천국 생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곧 영의 상태, 속 사람의 상태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전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천국 요건 갖추는 지름길, 곧 천국 질서, 주님의 질서로 사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이지 무슨 천국 입국 라이선스 취득 때문이 아니라는 것,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정작 삶이 안 바뀌고, 성품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가 비록 그랬어도, 즉 예수 믿고 특별히 무슨 속 사람의 변화가 없어도, 천국 시민이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어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면책을 받아 깨끗해져서 결국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보혈 교리, 십자가 구원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하시고 탕감, 즉 갚은 걸로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 이런 소식, 이런 복음을

들으면 정말 구원받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렇게나 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요즘은 워낙 이 세대 전체가 감각과 물질에 취해 이런 영적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그냥 시큰둥해하지만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주님은 아케이나를 통해 정정, 교정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지(*will*)와 이해(*understanding*)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최종결정은 우리에게 있으며, 주님은 단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늘 동행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악과 거짓과의 싸움, 죄에서 물러남 등을 주님이 대신해 주실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구조, 인간이라는 우리의 기본 설계원리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의지와 이해가 하나 될 때 형성되며, 그렇게 형성된 속 사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선을 의도하고 행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한 발 내딛는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악을 의도하고 행하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도하고 행한 것’이 우리의 영, 우리 속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도외시하고 그냥 십자가 보혈로 한번 샤워하면 천국가는,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 개인의 일종의 ‘쉬운 풀이’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성육신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일 뿐’인데, 후세 사람들은 이걸 성경으로 시인하고, 여기서 구원의 교리들을 뽑아낸 것입니다. 바울의 글들을 비롯, 인간의 글들이 성경 66권에 포함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글들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지 그 글들이 신(神)의 말씀과 동급이라느니 하는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글들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바울도 만일 그의 속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자기의 글들이 오늘날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민망, 당혹,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케이나를 통해 밝히십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The Word)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글과 말, 생각은 ‘말씀’이 아닙니다. 아케이나는 오직 신이 직접하신 말씀에만 들어있는 것으로, 그래서 무슨 교리를 뽑아낼 때도 ‘말씀’에서 뽑아내야지 ‘인간의 글’인 서신서 같은 데서 뽑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

창4:20-21, AC.412-420
“아케이나”(arcana, 秘義)

문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어리둥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스페텐보리의 아케이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접하다가 그만 마음 문이 닫혀 더 이상 무관심해지시든지, 그건 아니지만 내용이 어려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런데 이게 참된 주님의 말씀인 줄은 또 영으로 어렵듯이라도 알아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그냥 애만 쓰고 계시는, 대략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쪽 다 괜찮습니다. 이 아케이나가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시인, 인정만 하신다면 말입니다. 주님은 무얼 강제하시거나 강압적이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케이나는 내적(內的, *internal*)이어서 저를 포함, 외적인 삶에만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영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아케이나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줄은 알지만, 그러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말씀을 곁 글자의 뜻, 곁뜻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사랑이 신앙을 담는 그릇이듯, 선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듯, 곁뜻은 속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지상의 언어에 담아주신 것은, 현 인류가 이런 방법 말고는 주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우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언어는 천계의 어떤 지혜를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참으로 제약이 많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의 인류에게 맞추는 수밖에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 닭과 오리 등과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멕의 때에 아다와 썰라를 일으키셨던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 빛을 구하는 사람마다 그의 내면에 아케이나의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늘 이 빛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창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08-07(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